

장애인 고용 모범기업 격려 서신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보고받으면서 귀사를 비롯한 몇몇 민간 기업의 모범사례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더불어 사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장애인 근로자들, 책임감 있고 성실하지 않습니까? 역량과 자세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다는 것이 결코 채용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04년 처음으로 정부부문에서 의무고용비율 2%를 달성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14년 만의 일입니다. 공기업과 민간부문에서도 의무비율을 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크게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고용효과가 큰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모델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현재 1.3% 수준인 고용비율을 빠른 시일 내에 2%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장애인 고용실적을 더욱 비중 있게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일자리아말로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의 선물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